

이책 저책

티베트 문화체험 구도소설

서양인의 티베트 문화 체험기를 담은 구도소설 <달라이 라마의 돌> (전2권, 서광)은 티베트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인들을 꼬집고 있다.



켄 미첼이 쓴 이 소설은 중국에 교황교수로 있던 밥이 티베트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와 동행했던 일행들은 한 사원의 언덕에서 티베트인들이 죽어있는 환생을 기원하는 마니돌을 기념품으로 들고 온다. 이 마니돌은 밥의 가족에게 불행을 불러오기 시작한다.

결국 밥은 마니돌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다시 티베트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난다. 이 만남을 통해 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단순히 마니돌을 되돌려 놓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상된 카르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값 각권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만화로 보는 불교동화 2권

아이들에게 불자됨을 강조하는 것은 부모만 일인지도 모른다. <반아심경>을 잘 의문하고 불교를 의인하고 할 수 없고, 절을 잘한다



고 신령이 돈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불교적 심성을 갖게하는 불교만화 두권이 나왔다. <석가모니 지혜동화>, <석가모니 슬기동화> (은하수)는 <본생경>에서 가져 뽑은 70여 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진솔한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 여름방학동안 아이들에게 불교만화를 읽게 하는 것도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각권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민족사 작은경전 2차분 4권

민족사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작은 경전 시리즈' 2차분 4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지장경·부도승경>, <묘법연화경 상·하>, <대반열반경>이 바로 그것. 이 시리즈는 민족사의 '불교경전총서'를 1/4로 축소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켓용으로 제작됐다. 이 시리즈는 선불이나 법보시용으로든 활용할 만하다. 김중근 기자

정민 교수 '돌 위에 새긴 생각'

'학산당인보(學山堂印譜)', 중국 명나라 말엽 장호가 유명한 조각가들이 옛 경전에서 좋은 글귀만을 골라 새긴 인장을 모아 엮은 책이다. <돌 위에 새긴 생각> (열림원)은 한문학자 정민 교수(한양대 국문과)가 학산당인보를 구해 인장 가운데 고전 명구를 각한 것 173과를 가져 뽑아 엮은 것이다. 전각 작품은 불교경전을 물론 격언과 잠언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과 관계된 것들만 모았다.

돌 하나 하나의 구성과 배치도 뛰어나지만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옛사람들의 숨결은 더욱 뜨겁다. 돌 위에 새긴 옛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게 한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아난존자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나

범라 스님 번역 '아난존자의 일기'

아난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모셨던 수제자. 우리가 아난 존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그것이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의 십대제자-아난(우리), (아난)(홍범원) 등 일대기를 적은 책은 있었으나, 신간 <아난 존자의 일기>(전4권, 운주사)처럼 아난 존자가 설한 '경전의 기록'을 집대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책은 깨달은 자가 아닌 불자(아난)의 관점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저자는 경전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 미얀마 원나 시리 스님.

부처님 시봉이야기부터 수행과 깨달음까지

요지는 올바른 수행과 계행을 일러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부처님의 전기기를 비롯 발정도, 연기법, 사성제 등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총망라돼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일화 중심으로 엮고 있어 읽는이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이 책은 또 부처님과 제자들이 각각 말씀한 가르침의 요점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가르침을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왜 설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참작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편안한 독서를 도와준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과 제자, 그리고 제자들과 나누었던 법담과 수행의 모습을 그대로 실고 있는 이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난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승가 생활과 대중들의 이야기도 적절히 수록돼 있어 부처님 재세 당시의 승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우리 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처님과 그 주변의 수행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깊이 있는 수행 체험의 이야기들도 실려 있다. 우리 나라 최초로 <위승다 막가(청정도론)>을 우리말로 옮긴 범라 스님이 이 책을 번역했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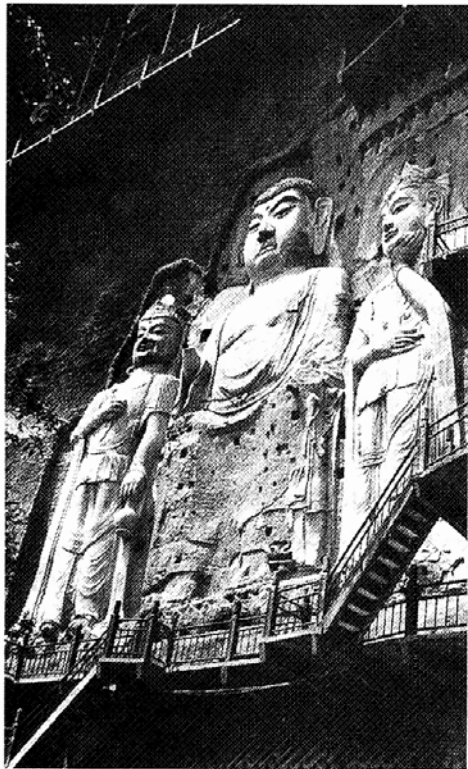
실크로드 유적으로 초대

엄경자씨 '무자트 강물에 연꽃을 피워라'

중국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건너간 길 교역로. 불법을 찾아 오가던 구도승들이 맨발로 걸었던 길 '실크로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이 길은 교역로이자 문화교류의 장이었다. 실크로드를 통하여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 페르시아 미술, 그리고 인도의 간다라 조각이 소리 없이 중국의 타림분지로 밀려왔다. 불교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 등의 종교도 서역을 거쳐 서안까지 전파됐다. 이 동서간의 문화교류는 당나라 때 전성기를 맞았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유입된 미술과 공예품은 호사로운 당나라의 문화를 꽃피웠다. 이러한 동서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실크로드 주변에 여러 문화유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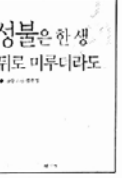
<무자트 강물에 연꽃을 피워라>(서문당)는 중국 북경에서부터 낙양과 서안을 거쳐 주천까지 중국 영토의 실크로드 미술유적을 돌아보고 쓴 답사기이다. 동양미술사를 독학으로 연구하고 있는 엄경자 씨(70)가 쓴 이 책은, 실크로드 미술유적으로 안내한다. 현장법사의 공력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안의 대안탑을 시작으로 회화의 보고 키질석굴, 황화문명의 유적, 그리고 용문석굴까지 이어진다. 글쓴이는 미술유적의 역사와 현황은 물론 서예를 어떻게 수용되어 토착예술로 탄생했는지, 동방의 미는 어떠한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특히 일방적인 자료모음이 아닌 협소한 곳에 위치한 유적지를 두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하고 쓴 책이란 점에서 무게를 더한다. 이 책의 1·2부는 서안으로부터 하서회랑을 따라 천산남로의 루트를 거쳐 신강성의 서단인 카시가르까지, 3부는 북경에서 시작하여 산성성 일대의 대동과 태원, 그리고 낙양, 정주 등 태행산맥과 복유산맥 사이의 고대 황하문명의 터전인 중원, 서안 우무무지 미술유적을 담고 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백작산 석굴 13호 굴 미애상존불상.

새로나온 책

▲성불은 한 생 뒤로 미루더라도(금명 스님 지음, 연기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불자들의 신행에 지침이 될만한 내용만을 가려 뽑아 엮은 법문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신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주안점으로 펴낸 이 책은, 불교의 4대 명장에 실한 법문을 시작으로 인연과 업, 연기와 중도 등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 법문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는 신행의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값 1만원.



▲낙동강을 따라가 보자(박창희 지음, 글샘미디어, 전2권)= 글쓴이가 3년간 가족과 함께 낙동강을 답사하고 쓴 체험기. 청송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이 책은, 낙동강이 처음 시작된 황지연못을 비롯 삼국유사가 쓰여진 군구인 각사, 새와 공룡과 물줄기를 친근 우표로,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등 낙동강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와 자연을 꼼꼼하게 담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가 볼만한 체험학습장소 등 여러 답사코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만의 특징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제임스 밴 프라흐 지음, 김정우 옮김, 선재)= 이 책의 말미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의 완성을 실현할 때까지 살아남을 거듭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은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는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정신세계의 모습은 어떤지, 영혼이 다음 생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윤회 과정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값 7천원.



▲운부(이덕일 지음, 중앙 M&B, 전3권)= 역사를 바꾸려 했던 조선 숙종조 승려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소설. 불교와 유교간의 갈등, 그리고 혁명... 시대를 뒤흔든 조선조 최대의 이 사건은 왜 그토록 철저히 은폐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소설은 역사의 배일에 감추어져 있던 그 진모를 하나씩 벗겨낸다. 값 각권 7천원.



▲전생 가기 참 쉽다(도솔)= 전생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기법들만 담은 매뉴얼. 전생 유도테잎에 의한 최면요법, 펜들럼과 점막대를 이용한 방법, 명상용 구는 방법 등 모든 전생 유도 방법이 망라돼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심신 이원법은 전생여행과 상관없이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데에 활용해도 좋다.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볼서 10

책방 역시이론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전통사찰음식	적문	우리
2	선방일기	지희	여시어문
3	영가천도	우룡	효림
4	지대방 이야기	홍사경원	법공양
5	법구경(작은경전1)	지현	민족사
6	5월16일 명상체험기	김남선	불광
7	산승일기	지목	우리
8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이당
9	선가귀감	박현	바나리
10	깨어 있는 삶으로의 여행	조샘	문화사랑

도서 안내: (02)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르스님의 유교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르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교법문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르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십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각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